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공동체운영위원회와 교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가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다음 주일(17일)은 기독교교육주일입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정관 초안에 대한 공청회(2차)로 모입니다.
-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18일-23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멋쟁이학교 테마여행이 12일부터 15일까지 진안-장수지역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분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9 호
2021년 10월 1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구름들이 떠다닙니다. 처음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인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미세먼지로 보냈던 가을이 영화에서나 보던 하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어 중국에서 불어오던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로 날아가서 또 다른 나라가 힘들진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국가 안팎으로 기틀을 다시 다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국과의 관계도 변화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호주와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호주에서 가져오던 연료의 수입이 줄어드니 이로 인한 전력난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닌 한나라의 전력난이 심해져 이웃나라의 공기가 좋아지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집단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서울의 쓰레기들을 매립해오던 인천시에서 더 이상 서울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지 않겠다하여 대립의 각을 세우고 의정부에서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우면서 포천시의 소흘읍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삽니다. 아니, 단순히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피해를 주며 삽니다. 우리들의 식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살펴볼 때 수많은 희생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희생과 내가 아닌 것들의 희생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채식주의나 비건주의 등이 등장하였지만 영양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식을 피할수도 없으며 누군가의 것을 빼앗음으로 우리의 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당신이 먹는 그것이 당신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대로 우리는 먹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무엇인가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의 희생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당장에 모든 먹는 행동을 그만두고 굶어죽어야 가나마 죄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교도들이 육식을 즐긴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의 삶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기억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식들이 소화되어 몸을 구성하듯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나의 기억이 되며 삶의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아닌 존재에 대해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하게 됩니다. 누군가처럼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과 또한 친분이 있는 소수에게만 이득이 가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귀를 기울여 타자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컸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식습관이 이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우리의 허를 만족시키기 위해 남미의 밀림이 밀려 옥수수가 심겨 소의 사료를 만들어내고 동남아의 밀림은 팜이 심겨 팜유를 만들어냅니다. 소를 많이 기르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물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60%가 어업과 관련된 쓰레기들이라 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살 순 없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막을 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절제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절제된 삶을 살 때 자본주의에 구조 속에 망가져가는 세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주간의 말씀

“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07편

제목 : 인자와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여라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29 408 414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3절 선하신 구원의 주님께 감사드려라

4~41절 여러가지 형편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42~43절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2. 내용의 의미(Why)

서론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너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론의 내용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신 구원의 역사를 서술한 내용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42~43절로,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권고합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나를 여전히 얽매고 있는 죄 된 성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 ② 언약을 바탕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로써 담대하게 살아가자.
- ③ 인자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문 속에서 환희와 승리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체념이나 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했으면서도 그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찬란하게 빛나는 이 기도문, “당신의 뜻이 이뤄지이다”는 다름 아닌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우리 자신이 철저히 이 하나님의 뜻 속에 감추어지며 그 뜻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곧 우리 삶에 유일한 평화를 가져다주며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선한 곳으로 귀결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저 천군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하나가 된 이들의 찬미를 듣는 순간, 우리도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미는 이 세상을 순례하는 우리의 음성 속에도 파고듭니다. 그 찬미는 반목하던 영혼에 안식을 주고, 운명만을 바라보고 있던 답답한 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한다면, 그것은 부끄럽지만 하늘의 군대가 부르는 찬미에 처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찬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당신의 뜻에 맡길 수 있다.”

헬무트 킬리케. [세계를 부동켜안은 기도]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05 : 1-4 인도자
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7 : 48 인도자
569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히브리서 12 : 1 - 3 설교자
85 사랑방
“ 롤모델,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52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종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윤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많이 닮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롤모델,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봅시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1>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2> “...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3> 요약하면,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참아내신 예수님 바라보며 달리면, 우리도 끝까지 참아낼 것입니다. 내용의 중심은 “예수를 바라봅시다.”입니다

롤모델,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은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포함한 믿음의 길 자체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는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믿음을 완성한 사람까지 보여주신, 즉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롤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유일한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되,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으라고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이십시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롤모델로 제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롤모델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는 삶의 모습은, 매일 '나'를 죽이는 삶의 모습이고,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종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주룩주룩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린 한 주간이 끝났습니다. 덥지 않아 뛰어 놀기 좋은 가을이지만 비가 와서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빗물로 수많은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랄 거란 기대감으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0월 성경이야기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매일 아침에 외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말씀) 긴 말씀이라 외우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외우는 모습에 감동도 받고, 참 대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못했던 바자회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공동체식구 모두와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상황이 안타깝지만 매일 등하교하는 친구들과과라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학생들, 대표 어머님들 외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우리 꾸러기들은 가족 손을 잡고 바자회를 돌았습니다. 각자 가방 1,2개를 가득 채우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수고와 정성으로 한 바자회를 통해 어렵고 힘든 선교 사역에 작으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사랑방학교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는 바자회를 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형태를 변화시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포장상품과 각 부모님들께서 내놓으신 상품, 그리고 경매물품은 SNS와 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면 바자회에는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쓰기 위해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몇몇 진행을 도우시는 부모님들만이 참여하셨고 돈도 스티커로 환전을 하여

배움과 가르침

사용하게 함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대한 막았습니다. 예보에 없던 비가 갑자기 쏟아진 탓에 실내에서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가장 먼저 어린이들의 베품시장이 열렸고 각자가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멋쟁이들은 구경을 하며 가족을 위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서로에게 세상 쓸데없는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멋쟁이가 설치해 놓은 다양한 게임들을 즐겼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육관을 울렸습니다. 그 후 간단한 간식들을 구입한 후 즐겁게 바자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즐겁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희색빛 흐린 날씨와 자주 내리는 비로 야외활동에 애로사항이 피는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개천절 대체휴일을 맞이하여 월요일 저녁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금요일에 있었던 학교연합 선교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하며 지냈습니다. 많은 멋쟁이들이 판매할 물건을 신중하게 골라서 갖고 오고, 공연에 보여줄 춤과 노래를 맘을 흘리며 연습하며, 모두가 즐거워할 게임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선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즐거움과 보람까지 함께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꾸러기학교, 어린이학교와 함께 하는 만큼, 더 어린 연령층도 배려하고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고 조정하는 것도 참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바자회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멋쟁이들이 많은 면에서 큰 역할들을 맡아주어, 바자회는 성황리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3, 4학년 특별과정으로 독일에서 오신 울리안, 엘라 선생님과 3, 4학년이 서로 짝을 지어 함께 외출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각 한국의 특별한 장소들을 오가며, 안내부터 식사까지 모두 스스로 준비하고 다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준비하는 멋쟁이들은 첫 번째이기에 누구보다도 부담이 심했지만, 막상 다녀오고 나서는 연신 웃는 얼굴로 얼마나 즐거웠는지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다음 주는 테마여행 기간입니다.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월요일에 등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멋쟁이들에게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바자회

매년 10월 첫 주가 되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작은 사랑의 나눔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과 깊은 가을하늘아래 서로의 물품을 나눌 수 있는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행이도 학교간 회의와 고민들을 통해 바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자회는 온라인장터와 현장 장터로 진행되었고, 처음 해보는 것이라 생소 할 것이라 생각되었던 온라인 장터는 신선하고 재미있고 앞으로라도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아이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선교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학교별 간식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과 아직은 스스로 물품을 사지 못하는 꾸러기 학부모님의 현장 참여로 그래도 시끌벅적하게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미리 주문받은 물품들을 만들고 포장하는데 참여했는데 정성들여 만든 예쁘고 맛있는 것을 전해드릴 생각을 하니 참 행복했습니다.

꾸러기 학부모로 둥이들 손을 잡고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장터는 비가와서 쨍하지 못했던 날씨와는 상관없이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손님들도 온몸으로 화려하게 참여하셨습니다. 어린이 장터가 열리고 멋쟁이 놀이장터와 공연이 열리니 예년 부럽지 않게 물품들이 오가고 했습니다. 몇 달만에 아니.. 몇 년만에 사람답게 서로의 어깨를 부딪치니 저도 모르게 무뎠던 사람냄새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하는 마음도 알아했습니다. 장터를 여는 선생님, 학부모님 아이들 모두 흥분된 상태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을 먹고 시작된 바자회는 짧고 굵게 간식시간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 집에 돌아온 저희집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기마음대로 샀었던 쇼핑물품들을 쏟아놓고 참 재미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세 아이들의 물욕을 발견하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그러면서 내일도 했으면 좋겠고, 미처 내지 못했던 물품들을 고르면서 바자회에 내놓겠다고 내년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했었던 바자회만 생각했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텐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과 손길 그리고 최선을 모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니 딱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해질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마음과 나눔의 시간들로 꽉꽉 채워질 내년 바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며 다시금 이곳이 깊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차태옥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시편 107 : 4~9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미얀마를 위한 기도>

쿠테타 이후 1100명이 숨졌습니다. 내전은 계속되고 있고, 사회 시스템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통제 속에 국민은 공포와 굶주림으로 살아갑니다. 인구 절반가량이 빈곤상태이지만, 도울 수 있는 여력도, 계획도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얀마에 군부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전을 끝내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은샘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장애인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2) 자립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세워진 은샘치아바타 빵집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3) 장애인 작업장이 세워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일 할수 있는 일터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을 앞둔 가정을 위해서

(2) 정관개정 초안 작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한 주는 가을비가 계속 내리는 주간이었습니다. 10월 첫 주는 몹시 바쁘게 지냈습니다.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학생들은 화요일에 등교를 했습니다. 게다가 금요일에는 선교 바자회가 있어서 목요일부터 준비 작업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많이 축소하여 진행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만든 다양한 소스와 잼 그리고 루디아 공방에서 제작한 샴푸, 비누 등 여러 품목들이 포장상품으로 나가고, 현장에서는 멋쟁이 학생들과 어린이 학생들이 준비한 판매마당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독일 방문객들은 매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간 중에는 멋쟁이학교 수업을 도와주시면서, 학생들과 어울려 생활합니다. 생활공동체 방모임은 아직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만남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점차 나아지리라 기대하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어 서로 만나 즐겁게 교제하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